

수줍음과 대인관계 변인간의 상호관련성

— 사회적 기술 및 동기 요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

RELATIONS BETWEEN SHYNESS AND INTERPERSONAL VARIABLES — FOCUSING ON SOCIAL SKILL AND MOTIVATION FACTOR —

김 근 영** · 윤 진**

Guen Young Kim, MA.** Gene Yoon, Ph.D.**

요 약 : 본 연구는 사회적 불안장애의 선행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줍음'이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을 알고자 실시되었으며, 특히 자기검색 척도의 사회적 기술 및 동기요인과 수줍음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함으로써 '동기가 높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경우가 가장 수줍음을 많이 느낀다'는 기존의 주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3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97명(남 : 231명, 여 : 266명)을 대상으로, 자기검색, 수줍음과 척도법을 이용한 학급내 인기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자기검색을 '사회적 기술요인'과 '동기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동기가 높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경우가 가장 수줍음 수준이 높았으며 이들 요인 중 '사회적 기술요인'의 효과가 컸다. 또래 인기 여부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는 수줍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여자인 경우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인기가 있었다.

중심 단어 : 수줍음 · 사회적 기술 · 동기 · 자기검색 · 또래인기도 · 초기청소년.

서 론

고대 그리스나 동양의 공맹사상에 따르면 '수줍어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율이나 법칙을 잘 존중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었다. Plato는 남앞에서 수줍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시민으로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물론 고대 철학자나 사상가가 말하는 수줍음이 현재 심리학자들이 일컫는 심리학적 구인으로서의 수줍음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줍어 한다는 것은 '적응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수줍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상당히 '비적응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DSM등의 정신장애 진단체계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서도 사회적 불안 '장애'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개인내적 특징이 현대에 와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줍음이 적응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유는 수줍음이라는 구인 자체가 '종 전체'의 행동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또한 종내의 개인차로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sendorf (1987, 1989)는 수줍음을 크게 상태적(state) 수줍음과 특질적(trait) 수줍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상태적 수줍음이란 '타인에게 접근하려는 동기와 회피하려는 동기가 갈등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반응'이라 정의된다. 반면에 특질적 수줍음은 바로 이 상태적 수줍음의 '개인차'를 일컫는 것이며, 현대에 부적응적인 행동이라 간주되는

수줍음은 특질적 수줍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정신장애 진단체계는 '수줍음'이라는 말보다 '사회적 불안'이라는 말로서 특질적 수줍음을 표현한다. 물론 수줍음과 사회적 불안은 다소 다른 개념으로서, 유명율에 있어서도 사회적 공포(사회적 불안)는 3%~13%사이지만(APA 1994) 수줍음은 연구에 따라서 전체 집단의 80% 이상이 '자신이 수줍어 한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encenberg 1990). 또한 행동적 측면이나 예후에 있어서도 수줍음, 사회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공포는 서로 다른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줍음과 사회적 불안(사회적 공포)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Barlow 1988 ; Leary 1983). 또한 수줍음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APA 1994). 이는 수줍음이 사회적 불안의 '예기적 양상'으로서 이해된다는 의미로서, 이후 사회적 불안이나 공포로 발달하게 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수줍음이 어떻게 발달하여 사회적 불안장애의 차원으로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중 '사회적 기술결핍 가설'은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중의 하나인데(Barlow 1988 ; Cheek와 Buss 1981 ; Twentyman과 McFall 1975). 수줍은 사람이 일반 집단보다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수줍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는지, 혹은 반대로 사회적 기술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를 잘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자신감의 상실로 인해 수줍어 하는 것인지 그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비록 많은 연구자들은 전자를 지지하고 있지만(Asendorf 1989) 이 둘의 관계는 이렇듯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없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비록 소수이지만 수줍은 사람 중에서도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기술결핍은 수줍음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적 근거이지만, 모든 수줍은 사람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수줍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술과

더불어 수줍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수줍은 사람들의 특징에는 단순히 사회적 기술의 결핍 이외에도 '동기적' 측면이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Asendorf 1989 ; Leary 1983) Leary(1983)는 사회적 불안이 '타인에게 잘 보이지 않는 동기적인 측면이 높은 동시에, 그를 달성할 사회적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기술과 동기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사회적 기술결핍의 효과와 동시에 동기적 측면을 봄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줍음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수줍음이 사회적 불안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수줍음의 어떠한 측면이 사회적 불안을 유도하는지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Leary(1983)는 수줍음의 동기 및 사회적 기술요인의 구분에 대해 Snyder(1974, 1979)가 개발한 '자기검색척도(Self-Monitoring Scale)'를 언급함으로써 시사하였다. 자기검색이란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환경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가를 일컫는 의미로서, 자기검색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의 요구에 민감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타인의 압력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민감한 반면, 자기검색 수준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보다는 자신의 내적 욕구나 선호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Schwaboe 1991 ; Shaffer와 Smith 1982 ; Snyder 1987 ; Snyder와 Gangestad 1982 ; Snyder등 1983 ; Snyder와 Simpson 1984). 따라서 자기검색 역시 수줍음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및 그에 관한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변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척도가 수줍음에 대해 논의점을 제형해 주는 부분은, 이 척도가 수줍음의 동기적 요인과 사회적 기술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자기검색척도는 크게 '외향성(extroversion)', '타인 지향성(other-directedness)', 그리고 '행동(acting)'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외향성'이란 타인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농담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 두번째 요인인 '타인 지향성'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 사회적 상황에 대한 동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막 요인인 '행동'은, 옳은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즉각적인 연설 등의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riggs, Cheek와 Buss 1980).

이러한 자기검색내 구성요인들과 수줍음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초기이자 대표적인 연구인 Briggs, Cheek와 Buss(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향성, 타인지향성, 그리고 행동요인들은 수줍음과 각각 $-.56$, $.37$, $-.23$ 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유의미 했다. 반면, 전체 수줍음과 자기검색간의 상관은 $-.10$ 이었다.

이러한 Briggs등(1980)의 연구결과를 Leary(1983)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정적(+)인 상관($r=.37$)이 나온 타인중심요인은,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이 가지는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려는' 동기와 관련된 개념이며, 부적(+)인 상관($r=-.23$, $-.56$)이 나타난 요인들은 실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동기가 있는 동시에, 그것을 수행할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때(Asendorpf 1990)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자기검색의 개념은 수줍음과 관련된 동기 및 사회적 기술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수줍음을 사회적 기술과 동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변인이 대인관계에 주는 효과를 관찰하고자 한다. 실제로, 수줍음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Cheek와 Melchior 1990; Jones등 1986),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상의 차이,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서양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검색척도에서 사회적 기술요인이 높을수록, 그리고 동기요인이 낮을 수록 수줍음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수줍음이 높은 사람은 동기가 높고 사회적 기술이 낮은 사람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일수록 또래로부터 인기가 없는 학생으로 보여질 것이다.

방법 및 절차

1.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시 지역의 초등학교, 2여자 중학교, 7중학교 2학년 학생 497명(남: 231명, 여: 266명)이었으며, 각 중학교는 남자반과 여자반이 따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중 정신지체로 인해 솔직한 응답이 의심스러운 한 명의 학생의 응답을 제외한 496명의 응답이 자기검색 척도와 수줍음 척도 자체의 관계 탐색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래인기도는 전학의 경우와 같이 같은 반 학생들끼리 충분히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적었던 학생 3인의 응답을 제외시킨 493명의 응답만을 포함시켰다 한 학급의 재적인원은 반에 따라 약 50~57명 정도였으며, 응답 학생은 각 반마다 41~55명 수준이었다. 모든 피험자 및 담임교사는 소정의 기념품을 받았다.

2. 수줍음척도

수줍음은 총 14문항으로 되어있는 「개정판 Cheek & Buss 수줍음 척도(Revised Cheek & Buss Shyness Scale; Cheek와 Melchior 1990)」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heek와 Buss에 의해, 수줍음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고자 고안된 기존의 척도들(Cheek와 Buss 1980; Fenigstein등 1975)들을 종합·개정한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 6, 9, 12번 문항의 경우 거꾸로 채점하는 방식을 택한다. 수줍음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1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높은 수줍음 집단과 낮은 수줍음 집단의 구분은 전체 평균에서 ± 0.5 표준편차이상 이탈된 집단을 채택하였는데, 높은 수줍음 집단은 척도상 점수가 47점 이상인 사람들로, 낮은 수줍음 집단은 38점 이하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각 점수의 백분위점수는 높은 수줍음집단이 69.1% 이상, 그리고 낮은 수줍음집단이 34% 이하로서, 선행 연구들, 예컨대 Cheek와 Buss(1980)의 경우 전체 분포의 60%와 40%를 기준으로, Asendorpf(1987)의 경우 77%와 32%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 자기검색의 측정

자기검색의 측정은 Snyder(1974)가 개발한 「자기 검색 척도(Self-Monitoring Scale)」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기 자기검색 척도로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인성과 장근영(1992)의 연구와 이주일(1988)의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번역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그렇다-아니다’의 이분식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전연구 결과(Snyder 1987)에 의하면 높은 자기검색 수준을 가진 사람의 경우 12개 문항에 ‘아니다’로, 13개 문항에 ‘그렇다’고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의 25개 전체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63이었다.

4. 또래 인기도

또래관계의 측정은, 많은 수의 학생을 분석할 때 용이한 점으로 인해 거명법이 아닌 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학생들에게 자신의 반에 속해있는 학생들에

Table 1. Factors and factor loading of self-monitoring scale

Item number	Factor 1	Factor 2	Factor 3
6 나는 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재미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61411 ^a		
12 여러사람과 함께 있을때, 나는 거의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60466 ^a		
22 모임에서 나는 내가 이야기하기 보다* 주로 다른 사람들의 '농담의'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	.58184 ^a		
8 나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7691 ^b		
18 나는 연예인이 소질에 맞다고 생각한다	.54132 ^b		
1 나는 다른사람들의 행동을 잘 흉내내지 못한다 *	.48835 ^d		
23 다른 사람과 있을때는 좀 어색한 생각이 들어서 내 진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	.48050 ^a		
20. 나는 몸짓연극(제스처)놀이나 즉흥적 행동과 같은 게임을 잘해볼 적인 한번도 없다 *	.44644 ^{a,b}		
21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에 맞도록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41634 ^a		
5 나는 내가 거의 알지 못하는 화제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다.	.38728 ^b		
2 나는 보통 나의 감정, 태도, 반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편이다 *	.38074 ^c		
3 여러 사람과 모이는 자리에서, 나는 남들이 좋아할 말이나 행동을 하려하지 않는다 *	.36128 ^c		
19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일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45377 ^c	
16 내 겉모습은 실제의 내 모습과 항상 같지는 않다		.43106 ^c	-.40952 ^c
7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때,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참조하는 편이다		.42948 ^c	
15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도, 나는 종종 즐거운 것처럼 꾸민다		.40920 ^c	
25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친한 척 할 수 있다		.35341 ^c	
11 코메디프롤을 볼때 나는 혼자 볼때 보다 친구들과 같이 볼때 더 잘 웃는다			.47896 ^d
9 영화, 책, 음악을 고르는데 있어서 친구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45262 ^d
14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 아주 능숙한 편은 아니다			.36036 ^a

Notes : Items were selected only if it showed .35 or much in factor loading (Items 4^d, 10^d, 13^c, 17^c, 24^b were excluded)

^aExtrovert Factors, ^bActing Factors, ^cOther-Directedness Factors, ^dExcluded in former study (Briggs et al., 1980), *Reverse scoring

결 과

대한 호감도를 묻는 형식을 취했다. 일단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반의 출석명부를 얻어내어 반마다 다른 검사지를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각 학생들로 하여금 이들을 '좋아한다-싫어한다'의 5점 차원(1점=아주 싫어한다, 5점=아주 좋아한다)의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각 점수들은 대체로 3점 이상으로 편포되어 있었으며, 다른 학급과의 비교를 위해 개인이 획득한 평균 선호도 점수들을 학급별로 Z점수로 표준화 시켰다 또한, 이 학급별 Z점수를 다시 학년단위로 Z표준화를 시켜서 전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조사절차

본 조사는 1993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 학교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 약 1주일전에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명부를 얻어 학급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학급에 들어가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담임 선생님이 실시하는 경우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미리 충분히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학급내 학우들에 대한 선호도, 자기검색, 수줍음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총 문항 수는 약 94문항이었고(각 반의 학생수 : 55±3+자기검색척도 : 25+수줍음 척도 : 14문항), 조사소요시간은 약 35분이었다.

1. 자기검색과 수줍음과의 관계

자기검색 척도 상에서 동기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자기검색척도의 상위 3개 요인을 추출한 결과, 요인 1은 대체로 기존연구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요인(외향성 및 행동요인)이 함께 묶였으며 이를 '사회적 기술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기존 연구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타인중심성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동기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어느 요인에도 속해있지 않던 요인들이 주로 요인 3으로 추출되었다. 이 요인은 '기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분포는 기존의 연구(Briggs등 1980)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및 행동요인이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외향성 및 행동요인인 모두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Leary 1983), 두 요인이 하나로 묶여진 것에 따른 이론적 문제점은 없었다.

자기검색의 두 요인이 각각 수줍음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파

Table 2. Correlation of factors of self-monitoring scale with shyness scale

Item of self-monitoring scale	r	Item of self-monitoring scale	r
사회적 기술요인	-.545 ^{***}	동기적 요인	.050
문항 6	-.309 ^{**}	문항 19	.012
문항 12	-.401 ^{***}	문항 16	.059
문항 22	-.402 ^{***}	문항 7	.163 ^{***}
문항 8	-.276 ^{***}	문항 15	-.026
문항 18	-.217 ^{***}	문항 25	-.037
문항 1	-.249 ^{***}	기타요인	-.027
문항 23	-.466 ^{***}	문항 11	-.009
문항 20	-.304 ^{***}	문항 12	-.407 ^{***}
문항 21	-.293 ^{***}	문항 16	.059
문항 5	.173 ^{***}	문항 14	-.162 ^{***}
문항 2	.271 ^{***}		
문항 38	-.196 ^{***}		

***p<.001

수줍음척도간의 단순상관을 구하였다(Table 2) Table 2에 따르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요인'의 경우 수줍음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동기적 요인'의 경우, 수줍음 척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검색 척도의 하위요인에서 수줍음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검색척도의 하위 수준인 '사회적 기술요인'과 '동기적 요인'을 평균 ± 5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고·저 두 집단으로 나누어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그 결과 수줍음 수준에 있어 사회적 기술요인($F_{1,201}=95.183, p<.001$)과 동기적 요인($F_{1,201}=3.883, p<.05$)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두 요인의 상호작용은 경향성은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단계적 소거법(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하여 수줍음 관련 변인(자기검색, 자기검색내 사회적기술요인, 자기검색내 동기적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기검색 척도내의 두 요인은 전체 자기검색보다 수줍음을 설명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특히 '사회적 기술'요인의 효과가 컸다(Table 4)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동기적인 측면이 높으면서 그것을 획득할만한 기술이 적을 경우가 수줍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된 자기검색 척도의 사회적 기술 요인과 동기적 요인의 4가지 조합(사회적 기술요인 \times 동기요인 $\times 2$)간의 평균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대비검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각 값들에 대해 .05 수준에서 Duncan 중다범위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사회적 기술이

높으면서 동기가 낮은 집단과 동기와 기술이 동시에 높은 집단의 평균차이만 의미가 없었을 뿐, 나머지 집단간의 평균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요인이 낮고 동기가 높은 중학생이 가장 수줍음이 많았으며, 사회적 기술요인이 높은 중학생들이 가장 수줍음이 적었다(Fig. 1).

자기검색과 수줍음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자기검색의 하위요인중 동기적 요인의 수준이 높으면서 사회적 기술요인의 수준이 낮은 중학생이 가장 수줍음이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요인과 동기요인은 수줍음을 설명하는데 있어 모두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기술요인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줍음과 또래 인기

또래인기도에 있어서 수줍음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t_{309}=-1.37, p=.17$) 또한 자기검색 척도상의 4가지 요인조합집단에 있어서도 인기도의 차이가 없었다($F_{4,202}=1.13, p=.34$) 그러나,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수줍음과 자기검색 요인들의 효과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수

Table 3. ANOVA process of factors of self-monitoring scale with shyness

	Social skill factor	
	High	Low
Motivation factor		
High	36.80(7.10)	48.02(6.85)
Low	36.74(6.13)	44.47(7.83)

Note : *Average of shyness(standard dev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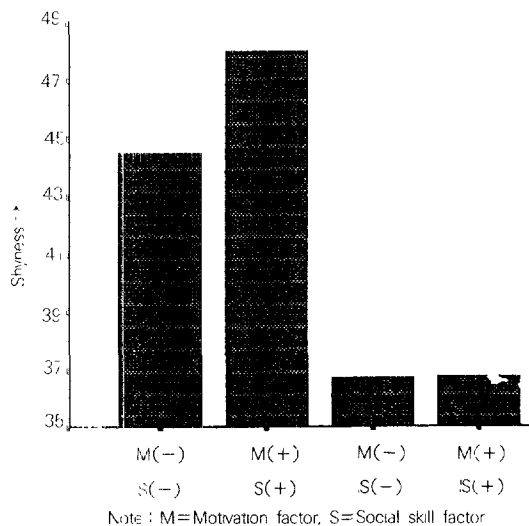


Fig. 1 The relation between factors of self-monitoring and shyness

Table 4. Stepwise regression processing about factors of shyness

	B	R ²	Adjusted R ²	F
Social skill factor	-1.72'	.290	.289	193.45**
Motivation factor	.83'	.305	.302	103.81**

**p<.001

Table 5. Stepwise regression processing about factors of peer-group popularity

	B	R ²	Adjusted R ²	F
Shyness	.038	.038	.030	5.27 [*]
Social skill factor	.089	.096	.083	7.15 [*]

^{*}p<.05, ^{**}p<.01

† Peer-Group Popul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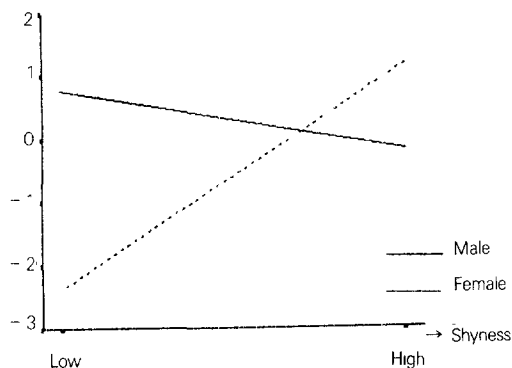


Fig. 2. Relations among sex, shyness and peer-group popularity.

줍음과 자기검색내 사회적 기술요인이 또래인기를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Table 5).

또한 수줍음은 성차와 상호작용하여 인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F_{1,307}=3.94, p<.05$), 즉, 남학생의 경우는 수줍음이 적은 집단이, 그리고 여학생은 수줍음이 많은 집단이 더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었다(Fig. 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줍음(shyness)수준이 사회적 기술과 동기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초기 청소년기 대인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회적 기술요인과 동기요인은 '자기검색 척도'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기술요인의 경우 수줍음과 부적인 상관관을 보였으며 수줍음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기적 요인의 경우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 기술이 낮고 동기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Asendorpf (1990)가 말했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동

기가 높은 동시에, 그것을 획득할만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각되었을 경우'가 가장 수줍음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며, Leary(1983)의 자기검색의 동기 및 기술적 요인과 수줍음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제언이 매우 타당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검색 요인 중 사회적 기술요인이 수줍음을 결정하는데 매우 주요한 변인임이 밝혀져, 기존의 '사회적 기술결핍 이론(Cheek와 Buss 1981; Twentyman과 McFall 1975)'이 수줍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동기적 요인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시 수줍음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된다면 수줍음 극복훈련 등 개입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작·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많은 개입프로그램들은 인지적인 개입과 사회적 기술훈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설기문 1988; Leitenberg 1990), 아직까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개입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래인기도에 있어 수줍음의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인기도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수줍음이 상당히 부정적인 특성으로 이해되었으며, 특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수줍음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Gough와 Thorne 1986), 이는 주로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결과이다. 그러나, 타인의 지각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몇몇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다. 예컨대 Parkhurst와 Asher(1992)는 수줍음 자체는 오히려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에게 긍정적인 특성으로 지각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Jones등(1986)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의 경우 수줍음은 선호도와 부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었으나 타인의 평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실제로 타인의 눈에 비친 인기도나 선호도에 수줍음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둘째, 남성의 경우는 수줍음이 인기와 부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정적인 관련성을 가졌으며, 특히 수줍음이 적은 여성의 경우 인기집수가 가장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국내의 환경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호작용했을 가능성도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서양의 경우에도 여성에 있어서는 수줍음이 남성보다는 어느 정도 용인되기 때문에 남성일수록 더 수줍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heek와 Melchior 1990). 그리고 성역할에 있어서도 서양의 성역할 척도(Bem 1974) 내의 여성성 척도는 '수줍다'는 문항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인 '유치함 요인(childishness factor)'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의 성역할 척도(정진경 1990)에는 문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 척도의 여성성 문항들은 서양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문화에서는 서양의 경우처럼 '여성으로서 수줍음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수준이 아닌, '여성으로서 수줍음이 장려되는' 수준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줍음이 없는 여성은 특히 더 인기도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지위에 의한 혼입의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Parkhurst와 Asher(1992)의 연구에 의하면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아동의 경우는 '높은 수줍음'을, '싸움을 먼저 기는' 아동은 '낮은 수줍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위의 두 집단은 모두 또래로부터 배척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만일 본 연구의 표집이 이루어진 학교가 특수하게 싸움을 먼저 기는 학생이 많았다면 수줍음은 인기와 상당한 부정상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로 인기에 영향을 주는 제 3의 변인의 효과인 것이다.

본 연구의 위와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점과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척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검색 및 수줍음 척도는 모두 미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동양인에 적용했을 때 얼마 타당하지가 불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자기검색의 경우 서양인들이 동양인보다 높은 경향(Coodwin과

Soon 1991)가 있으며, 수줍음의 경우 한국인은 오히려 서양인보다 수줍음이 낮다고 알려지고 있으며(Lettenberg 1990), 또한 서양인과는 수줍음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다(APA 1994). 이러한 결과는 본도 자체가 서양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대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치밀한 척도의 타당화작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각 남자반과 여자반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성끼리의 인기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수줍음은 특히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더 심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성간의 인기는 동성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러한 성차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의 주제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래지위에 따른 수줍음을 탐색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이 같은 배척받는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질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왔는데(Bierman등 1993), 이들 중 공격적인 배척집단은 수줍음과 부정적인 관련성을, 비공격적인 배척집단은 수줍음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arkhurst와 Asher 1992). 따라서, 수줍음의 탐색은 배척집단의 이질성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검색 척도'의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이용하여 수줍음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따라서 수줍음이 실제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자기검색의 동기 및 기술요인과 '정확히' 같은 의미라고 말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수줍음을 결정하는데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수줍음이 사회적 불안이나 사회적 공포로 발전하게 되는 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 수줍음이나 사회적 불안이 같은 연속선상이 놓여있는 변인이라면 사회적 기술이나 동기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변인들을 수치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 깔린 심리학적 변인을 측정, 개입하는데도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ferences

- 김인경·장근영(1992) :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5(1) : 143-156
- 설기문(역)(1988) : *Zimbardo, P.D. 원저, 부끄러움 극복훈련의 실제-실습생을 위한 워크북-*. 서울, 형설출판사
- 이주일(1988) :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 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1990) :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 82-9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rd. Ed, Washington, DC, Author
- Asendorpf JB**(1987) : Videotape reconstruction of emotions and cognitions related to shy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 542-549
- Asendorpf JB**(1989) : Shyness as a final common pathway for two different kinds of 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 481-492
- Asendorpf JB**(1990) : Beyond social withdrawal :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 250-259
- Bell IR**(1992) : Allergens, physical irritants, depression, and shyn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 125-133
- Barlow DH**(1988) : *Anxiety and its disorder*. New York, Guilford
- Bern SL**(1974) :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 155-162
- Briggs SR, Cheek JM, Buss A**(1980) : An analysis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 679-686
- Cheek JM, Buss AH**(1981) :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 330-339
- Cheek JM, Melchior LA**(1990) : Shyness, self-esteem, and self-consciousness. In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ed. by Leitenberg H, Plenum, NY pp.47-82
- Elliott GC**(1979) : Some effects of deception and level of self-monitoring on planning and reacting to a self-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 1282-1292
- Goodwin R, Soon APY**(1994) : Self-monitoring and relationship adjustment-A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 35-39
- Gough HG, Thorne A**(1986) : Positive, negative, and balanced shyness : Self-definitions and the reactions of others In *Shyness :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eds. by Jones WH, Cheek JM, Briggs SR, Plenum, NY, pp.205-225
- Jones WH, Briggs SR, Smith TG**(1986) : Shyness :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629-639
- Leary MR**(1983) :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Beverly Hills, CA, Sage
- Leitenberg H**(1990) :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Plenum Press
- Musser LM, Browne BA**(1991) : Self-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 Personality and social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 994-999
- Parker JG, Asher SR**(1987) : Peer-rela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 Do the ends justify being mean? - *Psychological Bulletin* 102 : 357-389
- Parkhurst JT, Asher SR**(1992) :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 231-241
- Schlenker BR, Leary MR**(1982) :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 641-669
- Schwalbe ML**(1991) : Role taking, self-monitoring, and the alignment of conduct with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 51-57
- Shaffer DR, Smith JE**(1982) : Self-monitoring as a determinant of self-disclosure reciprocity during the acquaintanc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 163-175
- Snyder M**(1974) : The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 526-537
- Snyder M**(1979) : The self-monitoring proces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ed. by Berkowitz L, Academic press, San Diego CA, pp. 86-128
- Snyder M**(1987) : *Public appearances / private realities* San Francisco, CA, Freeman.
- Snyder M, Gangestad S**(1982) : Choosing social situations : Two investigations of self-monitoring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 123-133
- Snyder M, Gangestad S, Simpson JA**(1983) : Choosing

friends as activity partners : The role of self-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 1061-1072

Snyder M, Simpson A(1984) : Self-monitoring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

chology 47 : 1281-1291

Twentymann CT, McFall RM(1975) : Behavioral training of social skills in shy 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 384-395

ABSTRACT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6 : 90~99, 1995

RELATIONS BETWEEN SHYNESS AND INTERPERSONAL VARIABLES
- FOCUSING ON SOCIAL SKILL AND MOTIVATION FACTOR -

Guen Young Kim MA.** Gene Yoon,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hyness,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former and comprehensive factors of social anxiety disorder,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rticularly, the relations among Social Skill Factor, Motivation Factor, and Shyness were examined in order to verify a conventional belief("the most shy people have both low social skill and high motivation.") 497 middle school students(231 males and 266 females) in Seoul were administrated with Snyder's Self-Monitoring Scale and Shyness Scale, and Peer-Group Popularity was measured. The results are : 1) the lower social skill is and higher Motivation is the more he or she is shy. 2) influence of Social Skill Factor is greater than that of Motivation Factor. 3) interaction effect among sex, shyness, and peer-group popularity was found.